

# 양계 사료산업 결산



강 상 식  
중앙축산사료(주)  
품질관리 이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동방역의 실패로 감염농가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야생 천둥오리에서 검출되었다.

이는 AI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아직 주변지역의 닭이나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축산농가, 방역당국 및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도래시기인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농가단위에서의 차단방역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타 축종에 비해 양계 생산물은 생산원가 중 배합사료 비중이 가장 높아 배합사료의 가격은 곧바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비에 큰 영향을 준다. 배합사료의 대부분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상황, 금융정책(환율), 해상운임, 곡물작황 등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도 2010년 한해는 배합사료 가격이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였으나 연말부터 사용되는 옥수수 등 주요곡물의

급격한 상승으로 배합사료 업계는 원재료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최소한 연초부터는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1. 2010년 양계 사료산업 결산

2010년은 우리나라 총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6% 이상 신장하여 1,750만톤의 사상 최대량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양계사료는 전년대비 약 3.3% 신장한 461만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한 것은 같은 가금류에 속하는 오리사료 등 기타사료가 전년대비 약 2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표1>. 이는 웰빙심리의 확대, 다양한 요리방법 개발 및 전문식당의 증가로 오리고기 소비열풍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의 경우에는 연초 구제역에 의한 대체소비, 월드컵 특수효과 등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생산량이 이에 따르지

<표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현황

년도	양계사료		양돈사료		축우사료		기타		합계	
	생산량 (천톤)	전년비 (%)	생산량 (천톤)	전년비 (%)	생산량 (천톤)	전년비 (%)	생산량 (천톤)	전년비 (%)	생산량 (천톤)	전년비 (%)
2010	4,609	3.3	5,524	3.6	6,054	7.7	1,295	21.5	17,490	6.1
2009	4,462	4.1	5,332	0.5	5,621	1.6	1,066	6.3	16,481	2.2
2008	4,286	-2.7	5,307	-1.9	5,535	3.8	1,003	-0.3	16,131	-0.1
2007	4,403	3.2	5,409	4.5	5,330	4.2	1,006	-9.5	16,148	4.3
2006	4,268	1.5	5,175	0.1	5,113	4.8	919	-11.3	15,475	2.6
2005	4,203	9.6	5,170	-4.6	4,880	4.3	826	-0.9	15,079	2.2
2004	3,836	-1.8	5,419	-4.3	4,677	0.1	819	-19.4	14,751	-3.3

자료: 한국사료협회 (2010년은 추정치)

못해 상반기 이후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되었으며 부족한 물량은 수입닭고기로 대체되었다. 금년 6월에서 9월까지 월간 10,000톤 이상의 닭고기가 수입되면서 전년도 대비 약 75% 이상 증가한 월평균 8,500톤이 수입되었다.

그동안 3년 이상 끌고 왔던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닭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산 닭고기의 점진적 관세감축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와 가격경쟁력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선호에 적합한 계육생산을 위한 관련업계의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할 것이다. 육계사료와 산란계사료의 경우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증가로 높은 병아리 입식열기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역시 생산량 상승세가 전망되나 내년 4월까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를 무사히 넘어야 하는 관건이 있다.

## 2. 육용종계 및 육계사료 현황

지난 한해는 남아공월드컵, 아세안게임 등의 특수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많아 육계의 산지시세는 좋았으나 육계생산성의 저하 및 수입물량 증가로 타축종에 비해 육계사료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한편 내년 7월부터 배합사료내 항콕시딴제를 제외한 항생제 사용금지로 각종 대체제 사용에 의한 항생제 무첨가 육계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들 대체제로서는 생균제, 유기산제, 식물추출물 등이 시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항균 작용 및 가축의 건강상태를 개선시켜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양계산물의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으나 이후 육용종계 분양수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2010년 10월까지 종계분양은 5,849천수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증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육용종계사

<표2> 육용종계 입식수 및 육계 사료생산량

연도	육용종계입식수(천수)		육용종계사료(천톤)		육계사료(천톤)	
	연누계	전년비증감	연누계	전년비증감	연누계	전년비증감
2010년(10월)	5,849	13.3%	231	7.5%	1,693	4.1%
2009년	5,862	7.5%	258	11.2%	1,913	7.8%
2008년	5,451	-6.7%	232	-7.6%	1,774	-4.6%
2007년	5,845	9.6%	251	2.9%	1,859	6.8%

(자료: 한국계육협회)

료 역시 전년 동월대비 7.5% 증가한 231천톤의 배합사료를 생산하였다.

육계사료 생산량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0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한 1,693천톤의 배합사료를 생산하였으며 연말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비교해 2010년 하반기 이후 종계 입식량이 급격히 늘어 소비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당분간 육계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계협회 종계 DB자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육용종계 총 사육수가 7,107천수로 지난해 동월대비 19.2% 증가했고 10월말 현재 종란 생산계군수는 4,322천수로 지난해 동월대비 21.2%가 증가했다.

종란생산성 저하와 입식수요 증가로 병아리단가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산지육계시세의 약세와 더불어 연말 입식수요가 마무리되면서 다소 약세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산란종계 및 산란사료현황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계란 실거래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머물러 채란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하였으나 노계 도태 및 산란종계 입식수의 조절 등으로 9월부터 난가가 회복되어 12월 현재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년 여름 이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급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계란 소비가 늘어난데다 난중저하 및 사육마릿수 감소로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 계란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 DB자료에 의하면 10월말 산란종계 총사육수가 529천수로 지난해 동월대비 14.3% 감소했고 10월말 현재 종란 생산계군수는 지난해 동월대비 10.3%가 감소했다. 난가안정세와 더불어 입식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산란병아리 공급량은 전년 대비 감소해 단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3>에서 살펴보면 2010년 10월까지 산란종계의 입식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

<표3> 산란중계 입식 및 산란사료 생산량

년도	산란중계입식수(천수)		산란중계사료(톤)		산란사료생산량(천톤)	
	연누계	전년비증감	연누계	전년비증감	연누계	전년비증감
2010년(10월)	448	-9.7%	44,579	27.9%	1,626	1.5%
2009년	518	-16.2%	42,286	12.5%	1,945	1.7%
2008년	618	37.3%	37,580	6.5%	1,912	-1.7%
2007년	450	4.9%	35,293	16.3%	1,946	-0.3%

(자료:대한양계협회)

해 9.7% 감소한 448천수가 입식되어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란중계사료는 27.9% 증가한 약 45천톤이 생산되었다. 산란사료 생산량은 최근 수년간 타축종에 비해 증감폭이 적고 올해 10월까지의 산란사료 생산량은 1,626천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1.5%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및 농업관측센터 자료<표4>에 의하면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감소와 산란용 닭 마리수 감소로 내년 3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기간보다 보다 2.4% 감소, 12월 대비로는 0.3% 감소한 6,103만수로 전망하고 있다

#### 4. 원료가격 및 전망

올 상반기는 배합사료 원료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각종 곡물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국내도착기준으로 1월에는 톤당 210달러 내외였던 미산 옥수수 가격이 12월초 도착분이 275달러, 내년 3월 도착은 300달러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국제 소맥 및 대두가격은 옥수수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올 여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재해가 발생해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료용 곡물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

<표4> 산란계 사육 마리수 전망

(단위 : 만마리)

	9월	12월	11.3월	12월/9월	3월/12월
2010년(A)	6,010	6,123	6,103	1.9%	-0.3%
2009년(B)	6,198	6,297	6,252	1.6%	-0.7%
증감율(A/B)	-3.0%	-2.8%	-2.4%		

자료 : 통계청 (10년.12월, 11년 3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을 미치는 미국 2010년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대비 3.4% 감소하고 총 소비량이 에탄올 용 및 사료용 소비증가로 전년대비 3.0% 상승하면서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47.2% 감소한 2,290만톤에 불과하여 총 소비량 대비 재고비율 6.7%로 근래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양계산물은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의 비중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원료 가격의 상승은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은 물론 닭고기 및 계란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도 금년도 사료산업의 경우 상반기 동안 원료가격의 안정, 하반기에는 환율하락과 점진적 경기회복으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배합사료의 증가폭이 비교적 큰 한해였다.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료 가격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1년 초부터는 배합사료 공장의 원가절감 및 경영개선 노력이 한층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